



재테크수단·신분상징물...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지니는 의미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전국의 주택 60%가 아파트고 매년 새로 짓는 주택의 70%가 아파트다.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사는 현실에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삼스럽지 않다.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집의 집합체가 아니다. 아파트가 사적인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는 공적인 공간이다. 문제는 공적인 공간이어야 할 '단지'가 그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한국사회'

박인석 지음

그때부터 도시의 구불구불한 길과 마을은 아파트 단지로 대체되었다.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다. 지난 40년간 주택정책은 일부 토지에 '아파트 지구'라 이름 붙여 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짙다는 목시적인 동 의도 한몫했다. 경제 성장과 개발 바람을 타고 아파트는 확실한 재테크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에게 불패신화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단지 전략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율 조정 능력의 약화

를 불러왔다. 아이들끼리도 평수에 따라 친구가 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평수로 계층을 나누는 세태'는 이웃의 진출입마저 통제했다. 그뿐인가. 사교육시장과 맞물려 '아파트단지'는 부의 대물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재테크 수단을 넘어 구별 짓기, 아이들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하는 '단지'는 더 이상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니다.

2013년 오늘, 아파트 과잉 공급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거품 붕괴라는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어떤 이는 아파트 신화를 20세기 바벨탑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더 이상 아파트 신화는 없다는 얘기가.

저자는 단지에 갇힌 도시와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개인이 머물고 싶은 공간, 삶이 묻어나는 아파트, 추억이 묻어나는 골목골목을 말한다.

"도시란 개인들의 활동이 집적되어 형성된 곳이다. 골목에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지고 복닥거림이 느껴지는 것은 이들 그들만의 공간 구조가 개체들의 접촉과 소통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식 개발을 해체하고 개체적 주체들이 주류가 되는 소필지 개발방식을 회복해야 한다. 도시개발 정책과 주택정책의 중심은 단지 개발에서 기성 소필지 조직 정비로 바뀌어야 한다."

<한양사·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환경이 주는 산물을 영위하며 사는 것 '자급'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마리아 미즈 외 지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 붐과 경제민주화 목소리는 대안 경제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독일의 자급이론과실천연구소의 마리아 미즈와 베로니카 벤홀트-토크 교수 등이 쓴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는 대안경제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급경제란 무엇인가?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복제국가든 어떤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도 결코 붕괴되지 않을 자급의 경제를 일컫는다.

자급경제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국가에서 왜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보다 낮게 평가되는지를 주목한다. 그러



면서 임금 노동과 과도하게 밀착된 나머지 임금노동이 일과 동의어가 돼버린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한다. 서너 명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임에도 "일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급의 관점은 경제와 임금노동 체계 외의 '비공식 부문'이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실질적 경제라고 본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자급 관점은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나온 산물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급 관점은 지구화가 아닌 지역화를 의미한다."

<동원·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겨진 자의 공간 '도시'... 알 수 없는 거래

'목시'

쓰시마 유코 지음

일본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 쓰시마 유코가 '목시'를 펴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상을 수상 했고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딸이기도 한 작가는 패전 직후 일본을 그린 '웃는 늑대' 등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출간한 '목시'는 한국 작가 신경숙과의 인연으로 결실을 맺었다. 2006년 3월부터 일 년간 한일 양국 문예지에 연재되었던 두 작가의 왕복 서간에서 '쓰시마 유코가 고된 중단편을 엮어 한국에서 내자'고 했던 신경숙의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다.

책에는 쓰시마 유코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수록된 작품 주인공들은 작가와 닮은 점이 많다. 사춘기에 겪어야 했던 오빠의



죽음, 성인이 된 후 갑자기 찾아온 어린 아들의 죽음 등 불행했던 개인사가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표제작인 '목시'는 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인 '나'가 집 근처 숲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모티프로 은밀한 거래를 떠올린다는 내용이다. 원래 목시라는 말은 비밀리에 이뤄지는 침묵 속 거래를 뜻한다. 작품에서는 도시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알 수 없는 거래를 상징한다.

소설의 공간이 되는 배경은 삶과 죽음, 꿈과 현실로 양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얽히는 세계로 인식된다. 이로써 공간은 다른 시공에 있는 이들과 재회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문학동네·1만1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곱도시, 그곳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무료숙소, 전세계 여행자들과 나눕니다

'동경과 월경의 순간들'

서윤영 지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담은 집' 등 건축 관련 책들을 펴낸 서윤영씨가 이번에는 '여행'을 통해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 책 '동경과 월경의 순간들'을 통해서다.

저자는 경계, 떠남, 거리두기, 만남, 쉬임, 귀로 6개 카테고리 나뉜 도쿄, 교토, 베이징, 파리, 하노이, 홍콩, 이스탄불 등 그녀가 동경했던 일곱 도시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탕에서 여탕으로의 이주를 인생의 첫 여행으로 꼽은 그녀는 공황에



서의 출발을 시작으로 비행기 안의 풍경, 현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이야기한다. 세세한 여행 정보나 풍경과 유적에 대한 감탄 등은 없다. 대신 각각의 도시에서 만난 것들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1993년 도쿄부터 2013년 이스탄불까지 20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글리·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카우치서핑'

김광섭 지음

'카우치서핑'이란 잠자리 탐색이라는 뜻을 지닌 신조어다. 카우치는 침대대로 쓸 수 있는 긴 침대를 가리키며, 서핑은 찾다는 뜻이다. 지난 2004년에 오픈한 카우치서핑(www.couchsurfing.org)은 잘 곳이 필요한 여행자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커뮤니티이다.

2007년부터 자전거를 타고 세계일주 중인 김광섭씨가 펴낸 '카우치서핑'은 그간의 여행 보고서다.

자자는 동남아와 호부를 거쳐 터키, 불가리아, 세르비아, 네덜란드, 벨



기에, 프랑스를 카우치서핑으로 6개월간 숙박했다. 그가 만난 현지인들은 각각 각색이다. 터키에 거주 중인 중국인, 불가리아로 유학 온 폴란드 기숙사생, 피에로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젊은 부부, 불가리아인 미혼모까지 셀 수 없이 많다.

저자와 이들의 만남 이면에는 순수한 호의와 따뜻한 마음이 오갈 수 있도록 짐장다리 돼준 카우치서핑이 자리한다.

<세상의 모든 길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매 순간이 기회, 선택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행복을 미루지 마라'

탈 벤-샤하르 지음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의 최대 걸작인 다비드 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질문에 '체석장의 카타란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다비드를 보았고, 다비드를 꺼내기 위해 불필요한 대리석을 제거하기만 하면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하버드대학교 탈 벤-샤하르가 베스트셀러 '해피어'와 '완벽의 추구' 이후 3년 만의 신작 '행복을 미루지 마라'로 돌아왔다.

하버드대학교 탈 벤-샤하르의 '행복(Happiness)' 수업은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의 '정의(Justice)', 에일대 셸리 케이건의 '죽음(Death)'과 함께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불린다. 학기당 하버드 전체 재학생 20%



가 수강하는 강이다. 탈 벤-샤하르는 책에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연구 성과와 흥미로운 사례들, 그리고 동서양 고전에서 찾아낸 감동적인 이야기, 리더들의 삶 등을 토대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101가지 행복 실천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매 순간이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기회를 깨닫고, 우리가 크고 작은 기회들을 찾아내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라는 의미다.

"걱정은 결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저 오늘의 기쁨을 밀려 버릴 뿐이다."

<와이즈베리·1만5000원>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신간

▲개똥 세 개 =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십대들에게 보내는 9인 9색 멘토링 에세이집.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올바른 삶을 모색하고 있는 아홉 명이 그들의 삶에, 절망의 고비마다 곁집을 깨고 오늘에 이르게 해 준 멘토는 누구였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결국 멘토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본다.

<복멘토·1만3000원>

▲녹색은 적색의 미래다 = '생명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가?' '생태적 지혜를 위한 철학 산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생명 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룬 생태철학 책이다. 201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열망처럼 일어난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소수자의 욕망, 생태 운동 등 미시 영역에 대해 본격적인 사상적 탐색을 한다.

<알렐·1만3000원>

▲소셜 네트워크와 선거 =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환경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1부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선거캠페인'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에 따라 선거캠페인이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2부 '소셜 네트워크 시대 선거정치'에서는 19대 총선 트위터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액티비스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트위터의 정치적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손석희가 말하는 법 =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황을 장악한다.'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연구하고 분석한 손석희 스타일 말하는 모든 것. 논쟁과 논리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현직 변호사가 손석희의 말하는 법과 사고 구조를 분석해, 말하거나 프리젠테이션 능력 제고가 필요한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모멘텀·1만2000원>

▲원표 여행 = 일상에서 벗어나 원과 여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힐링 여행 가이드북.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와 여행출판 카피라이터가 전국 곳곳의 휴식이 되는 여행지를 엄선해 추천하고, 치유와 회복의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여행법을 소개한다. 제주 2박 3일 테마별 힐링 여행 코스와 한나절이면 다녀올 수 있는 수도권 인근 베스트 휴식 여행지도 수록했다.

<비티북스·1만5800원>

▲만지는 문화로 초대합니다 = 전쟁 시각장애인 히로세 코지로. 그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을 만지는 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 '촉 문화'가 시각장애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전하는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가 아닌, 저자의 경험담이 유머러스하게 담겨 있다.

<BF북스·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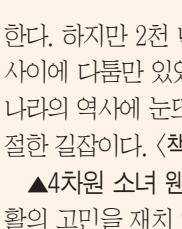
▲수학을 사랑한 아이 = '수'와 '사람'을 사랑한 천재 수학자 폴 에어디쉬의 삶을 담은 그림책. 위대한 수학자이기 이전에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전 세계의 수학자들에게 사랑받은 폴 에어디쉬 이야기는 아이들이 수학과 수학자에 대해 가질 법한 막연한 경계심을 허물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뽀니루·1만1000원>

▲우리 개의 인내감을 찾습니다 = '네가 눈이 멀면,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줄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소녀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은 개의 우정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그동안 개의 주인에 대한 헌신을 다룬 책들과 달리 눈이 먼 개를 위해 헌신하고 보살피는 소녀의 정성과 그들의 우정이 감동을 전해준다.

<스콜라·9800원>

▲뿔! 곰마를 구해줘요 = 동물의 생명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 곰 농장을 찾았던 철천지와 대수는 조사를 하면서 곰 농장의 실태를 알고 충격을 받는다. 곰들을 구하기 위



한 아이들의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동물의 생태에 대한 소중함과 어머니의 사랑을 깨우치게 된다.

<스콜라·1만1000원>

▲세 나라는 늘 싸우기만 했을까? =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이웃나라이니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경계가 맞닿아 있어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역사 문제를 두고도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 하지만 2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 나라 사이에 다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 책은 이웃나라의 역사에 눈뜨기 시작한 어린이를 위한 친절한 길잡이다.

<책과 함께 어린이·1만2000원>

▲4차원 소녀 웬디 유명해질 거야! = 학교생활의 고민을 재치 있게 풀어낸 유쾌한 동화. 학교생활의 고충을 대변해 줄 발랄독소 소녀 웬디. 어디로 팔지 모르는 웬디의 엉뚱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듣다 보면 어느새 학교생활이 그리 우울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재미투성이인 학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니어HRK·1만원>

어린이 책꽂이